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과 장 박용주 사무관 이준재	042-481-5070
	2016년 3월 24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3월 23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한국에선 내 상표, 중국에선 남의 상표?

- 특허청, 기업대상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과정」 실시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국에서 상표침해 등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과정」을 실시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우리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해 놓고 기업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2015년에 접수된 174건의 지재권침해 상담 중 167건(96%)이 상표침해였다. 그 중에는 국내상표 500여건을 선점한 기업형 브로커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한국에서는 내 상표지만, 중국에서는 남의 상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국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현지에서 새롭게 출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아직도 많다. 거대시장 중국의 지재권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특허청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과정」은 철저히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시간과 장소를 기업이 선택하면 특허청에서 수요자 특성에 맞는 최적의 교육내용을 설계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육과정은 분기별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이 있다. 정기교육은 업종별 전문협회와 협력하여 산업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시간도 가장 선호하는 1~2시간 이내로 최적화했다. 금년은 의류·프랜차이즈·식품·화장품협회 순으로 진행한다. 수시교육은 개별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방문형·맞춤형 교육으로 개설된다.

교육내용은 중국의 지재권 환경 및 제도의 특성, 우리기업에 유리한 제도 및 활용 전략, 우리정부의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각종 침해 대응 매뉴얼 등 기업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94~6) 홈페이지(www.koipa.re.kr) 또는 각 업종별 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붙임 : 기업대상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과정」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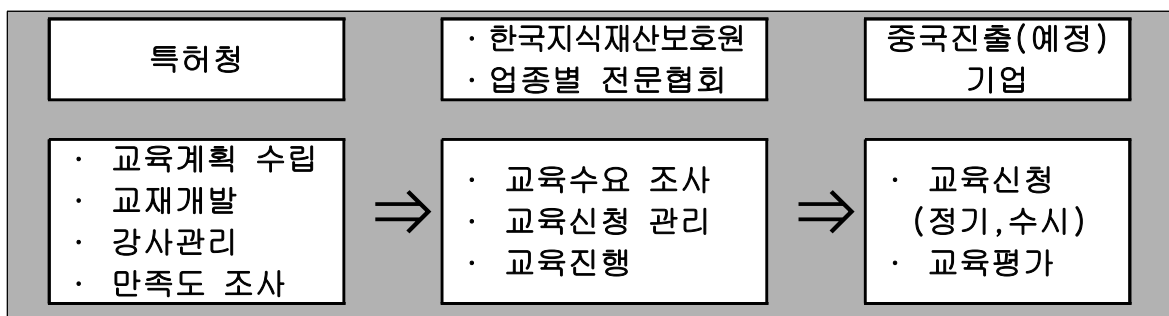
붙임 기업대상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과정」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중국진출 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 저조로 다수 기업이 지재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
- 기업대상의 체계적인 중국지재권 교육추진으로 지재권역량 강화를 통한 대중국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

□ 추진체계

- 특허청은 기업대상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업종별 전문협회는 허브역할 수행



□ 교육운영 계획

- (종류) ① 정기교육 : 분기별·업종별 전문협회를 통한 교육
(1분기)의류협회, (2분기)프랜차이즈협회, (3분기)식품협회, (4분기)화장품협회
- ② 수시교육 : 개별 수요에 따른 방문형·맞춤형 교육
- (신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내용) 중국 지식재산 환경 및 제도, 활용전략, 침해대응 매뉴얼 등

□ 향후 추진계획

- 1분기 교육 : 의류협회 회원사 대상
 - 시간 : 2016. 3.29.(화). 「섬유·패션분야 IP Academy」 과정
 - 장소 :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 ※ 2~4분기 교육은 분기별 지식재산보호원, 각 업종협회홈페이지에 안내예정